

[제4급]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

바. 광동주혈선충증(Angiostrongyliasis)

2023.07.31. 기준

구 분	내 용
감염병 분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4급 법정감염병 ○ 표본감시감염병
원인병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동주혈선충(<i>Angiostrongylus cantonensis</i>)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https://www.cdc.gov/parasites/angiostrongylus/index.html - - 광동주혈선충(<i>Angiostrongylus cantonensis</i>), 코스타리카주혈선충(<i>A. costaricensis</i>) 등 - 쌍선충류에 속하며 쥐의 폐동맥에 기생함 - 몸길이는 암컷 22-34 mm, 수컷 20-25mm이며 암컷은 특징적인 나선무늬를 나타냄
병원소(감염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유숙주: 육서산 패류(아프리카왕달팽이), 담수산 패류 ○ 운반숙주: 담수산 새우, 게, 육서산 플라나리아, 개구리 등 ○ 종숙주: 시궁쥐, 집쥐, 큰도깨비쥐, 모자이크검은쥐 등의 설치류
발생현황	<p>[국외현황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0개 국가에서 2,800여 건의 감염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태국, 중국, 타히티, 미국, 쿠바, 뉴칼레도니아, 일본, 호주 등 순으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됨 ○ 태국과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사과달팽이(<i>Pila snail</i>)와 패류들을 관습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인체감염 가능성도 매우 높음 ○ 유행지에 여행, 어업활동을 방문한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발생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에 유행지 방문 시 주의를 요함 <p>[국내현황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980년 원양어업에 나간 우리 선원 15명이 사모아에서 대형달팽이인 <i>Achatina fulica</i>(아프리카 산 왕달팽이)를 날로 먹어 1명이 사망한 예가 보고됨 ○ 그 외 발생사례 보고 없음
진단검사 및 신고기준	<p>[신고를 위한 진단기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자: 광동주혈선충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다음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<p>* 임상증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호산구성 수막뇌염: 두통, 목덜미 경직, 광선공포증, 시력손상, 안면 감각이상 및 마비, 현기증, 균형감각 상실 및 수막자극증 등 - 호산구성 척수뇌염: 호산구성 수막뇌염보다 심한 증상 - 호산구성 신경근척수뇌염: 강렬한 통증, 하지의 지각이상, 근연축, 사지마비 등

구분	내용								
	<p>- 안구감염에 의한 눈 주혈선충증: 시력 감퇴, 복시, 눈부심, 안와 후방의 통증 등</p> <p>[진단을 위한 검사기준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검사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검사법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세부검사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확인진단</td> <td>검체(뇌척수액, 혈액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</td> <td>유전자검출검사</td> <td>PCR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검사기준	검사법	세부검사법	확인진단	검체(뇌척수액, 혈액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	유전자검출검사	PCR
구분	검사기준	검사법	세부검사법						
확인진단	검체(뇌척수액, 혈액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	유전자검출검사	PCR						
신고 및 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범위: (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 진단한)환자 ○ 신고시기: 7일 이내 ○ 신고방법: 질병관리청으로 팩스 또는 웹(http://is.kdca.go.kr)의 방법으로 신고 * 팩스 신고 시 유선전화로 팩스 수령 여부 확인 반드시 필요 								
사례조사 및 유행역학조사	<p>[대상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자 <p>[시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7일 이내 <p>[주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자 주거지 시·도 								
감염경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간숙주(담수산 패류와 민달팽이 등)나 운반숙주(새우, 게, 개구리, 물고기 등)를 날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여 감염됨 ○ 때로는 유충으로 오염된 채소나 물을 먹어 감염됨 ○ 패류가 배출한 점액 속의 유충 또는 죽은 패류에서 유출된 유충으로 오염된 물 또는 야채 섭취로도 가능함 ○ 유행지역에서의 인체감염은 주로 중요한 중간숙주의 하나인 아프리카 왕달팽이 (<i>Achatina fulica</i>) 섭취로 인해 발생함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① 성충은 설치류의 폐동맥과 우심실에 살</p> <p>② 암컷은 폐동맥 말단 가지 부위에서 알을 낳음. 알에서 나온 1기 유충은 식도로 이동하여 결국 대변으로 나감</p> <p>③ 1기 유충은 패류나 달팽이에 들어가 3기 유충이 됨</p> <p>④ 쥐는 종숙주로 3기 유충을 섭취한 후 감염됨</p> <p>유충은 쥐의 폐동맥에 머물면서 성체가 됨</p> <p>⑤ 사람은 3기 유충을 가진 덜 익힌 패류나 민달팽이, 오염된 채소, 게나 새우 등을 먹고 감염됨</p> <p>⑥ 사람 숙주 내에서 유충은 뇌나 폐로 이동함, 인체 내에서는 성충으로 자라지 못해 유충상태로 머물다 죽음</p> <p>감염단계 진단단계</p> </div> <p>- https://www.cdc.gov/parasites/angiostrongylus/biology_can.html -</p>								

구 분	내 용
참고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관리청. 2023년도 기생충감염병 관리지침 ○ 질병관리청. 2023 법정감염병 진단·신고 기준 ○ 질병관리청. 2023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4판 ○ 질병관리청. 2022년도 표본감시감염병 사용자매뉴얼(보건소용) ○ 질병관리본부/국립보건연구원. 2020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(제2,3,4위험군) ○ 질병관리청/대한감염학회.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○ https://www.cdc.gov/parasites/angiostrongylus/index.html